



휘영청 밝은 달, 정다운 한가위

강 욱
자유기고가

해마다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아 떠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일이 바빠도 추석 때만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고 조상 앞에 정성을 바친다. 이는 조상의 음덕(陰德)을 잊지 않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속의 한 모습이다.

음력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秋夕)이다. 한가위라고도 하는 이 날을 중국에서는 중추절(仲秋節), 월석(月夕), 일본에서는 십오야라고 부르며 명절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유난히 추석 명절로 풍성하고 정겹게 보낸다.

원래 추석을 명절로 삼은 것은 신라 때부터이다. 신라 유리왕 때 가배(嘉俳)라는 행사를 베풀었다고 한다. 한가위 한달 전에 베 짜는 여자들이 궁궐에 모여 두 편으로 나누어 한달 동안 베를 짰다. 한달 뒤인 한가위날 그동안 베를 짠 양을 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잔치와 춤으로 갚은 것에서 ‘가배’라는 말이 나왔다.

이 가배라는 베 짜기 대회 이름은 훗날 추석을 일컫는 이름으로 변화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가위이며 다시 한가위로 변했다. 중추란 말은 가을이 계절의 중간이 되므로 붙인 말이다.

푸른 하늘이 드높은 이 때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일년 중 제일 선선한 천고마비(天高馬肥)의 좋은 계절이다. 동시에 오곡이 풍요롭게 영글고 백과(百果)가 풍성하게 익어 가는 때이니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빻어 나눠 먹었다고 해서 “일 년 열두 달 삼백 육십 오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생겼다.

추석 명절은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다양한 행사와 풍속이 펼쳐졌다. 추석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새 옷을 갈아입고 햇곡식으로 빻은 송편과 햇과일을 차려놓고 조상께 차례(茶禮)를 지낸 후에, 자손들을 이끌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 효(孝)의 정신이며 아름다운 풍속의 자취다.

이와 함께 한식(寒食) 때 손질한 이후 여름철 내내 풀로 무성한 묘소를 벌초(伐草)함으로써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성묘를 하고 온 가족이 웅기종기 산소에 둘러앉아 생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한 폭의 민속화(民俗畵) 같은 풍경이다.

설에는 옷을 얻어 입고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는 우리나라의 옛 속담이 있다. 하도 먹을 것이 많은 탓인지 한가위를 대표하는 음식을 꼽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동국세시기》에는 송편, 시루떡, 인절미, 밤단자를 시절음식으로 꼽았다.

역시 송편이 대표적인 추석음식이다. 수확 철보다 이르게 익은 올벼를 베어다가 찧어 오래쌀을 만들고 이것으로 송편을 빻는다. 쭈, 소나무 속껍질인 송기, 치자, 대추 등을 다지거나 물을 우려내 송편의 고운 색을 내고 송편의 소(송편이나 만두에 넣는 속)는 거피팥, 햇녹두, 청대콩, 햇밤 등을 넣어 맛을 낸다.

송편을 달떡이라고도 한다. 달의 모양처럼 둥그렇게 빻기도 하고 반달 모양으로 빻기도 하는 것이다. 전하는 말로는 송편을 예쁘게 잘 빻어야 시집을 잘 간다고 하여, 여성들은 예쁜 손자국을 내며 반원형의 송편에 꿀, 밤, 깨, 콩 등을 넣어 정성껏 만들었다.

솔잎을 총총히 까는 것은 찰 진 송편이 붙지 않게 한 것이지만, 송편에 적당한 무늬를 새기기도 해 시각적인 멋도 가미한 것이다. 솔잎의 향긋한 내음과 송편 속의 달고 고소한 맛은 천하의 일품이다. 그래서 추석 때 그 맛에 겨워 과음 과식하여 배탈나는 사람도 많다.

즐겁고 신나는 날이 아니랄까 추석에는 친정 나들이가 있었다. 지금은 추석 뒤에 친정에 가서 놀다 오게 하지만, 옛날 엄하던 시집살이 시절에는 일년에 한번 친정에 갈 수 있는 날이 바로 한가위였던 것이다.

친정에서는 사위와 딸을 위해 햇토란으로 토란국을 끓이고 표고, 송이, 능이, 느타리, 목이 같은 갯가지 버섯으로 버섯요리도 만든다. 무와 호박을 섞어 시루떡을 하기도 하고 햇밤으로 만든 단자나 햇배로 만든 배수정과라 하여 곶감 대신 배를

넣은 음식도 마련한다.

한가위 하면 으레 연상될 법도 한 것이 강강수월래다. 휘영청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르면 바닷가 모래밭이나 마을 넓은 뜰에 곱게 차려입은 여인네들이 모여든다. ‘강강수월래’의 명칭에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와 강강수월래(江江水越來)가 있어 두루 쓰인다. 즉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말과, 적군(왜군)이 물을 건너온다는 신호의 뜻이다.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왜적에 비해 우리 병사의 숫자가 적자 머리를 써서 산에 불을 붙여 놓고 마을 여자들을 빙빙 돌게 해 왜적들로 하여금 우리 병사들로 착각하게 해서 왜군을 철수케 하였다는 설이 있다.

추석날 밤 밝은 보름달 빛을 받으며 여인들이 청초한 목소리로 강강수월래를 노래하면서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쾌활하고 아름답다. 강강수월래는 처음에 느린 가락의 진양조로 시작하다가 점점 빨라져 춤동작도 노래 가락에 맞추어 여러 형태로 원을 변형시키며 고사리꺾기, 덕석몰이, 청어엮기, 문열기, 기와 밟기, 가마둥둥, 닭살이, 남생이 등 춤 놀이를 벌인다.

이와 비슷하게 임진왜란 때 생겼다는 노래로, 경상도 지방의 ‘꽤지나칭칭나네’라는 노래도 전해온다. 이 노래도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뜻을 지녔는데 다만 강강수월래가 여자들의 놀이인데 비해 ‘꽤지나칭칭나네’는 남자들의 놀이인 점이 다르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한 한가위는 명절중의 명절이다. 밤하늘에 쟁반 같은 보름달 한 덩이가 대낮처럼 온 누리를 비추니 한층 더 정답고 푸근하다. 🍵

